

# 밖에서도 못 만난 연예인, 군법당에서 만났다

## 육군 제17사단 산사음악회

부처님오신날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불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기쁨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부산 범어사에서는 장애인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17사단 군법당에서는 음악회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그 현장을 찾았다.

“오... 오... 신의 부름이다! 신의 부름!”

공연이 끝나자 마이크를 들었다. 신(神)? 군장병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신’이라며 수근거렸다.

“지금 노래 부른 장병이 몇 명이지? 행사 마치고 바로 휴가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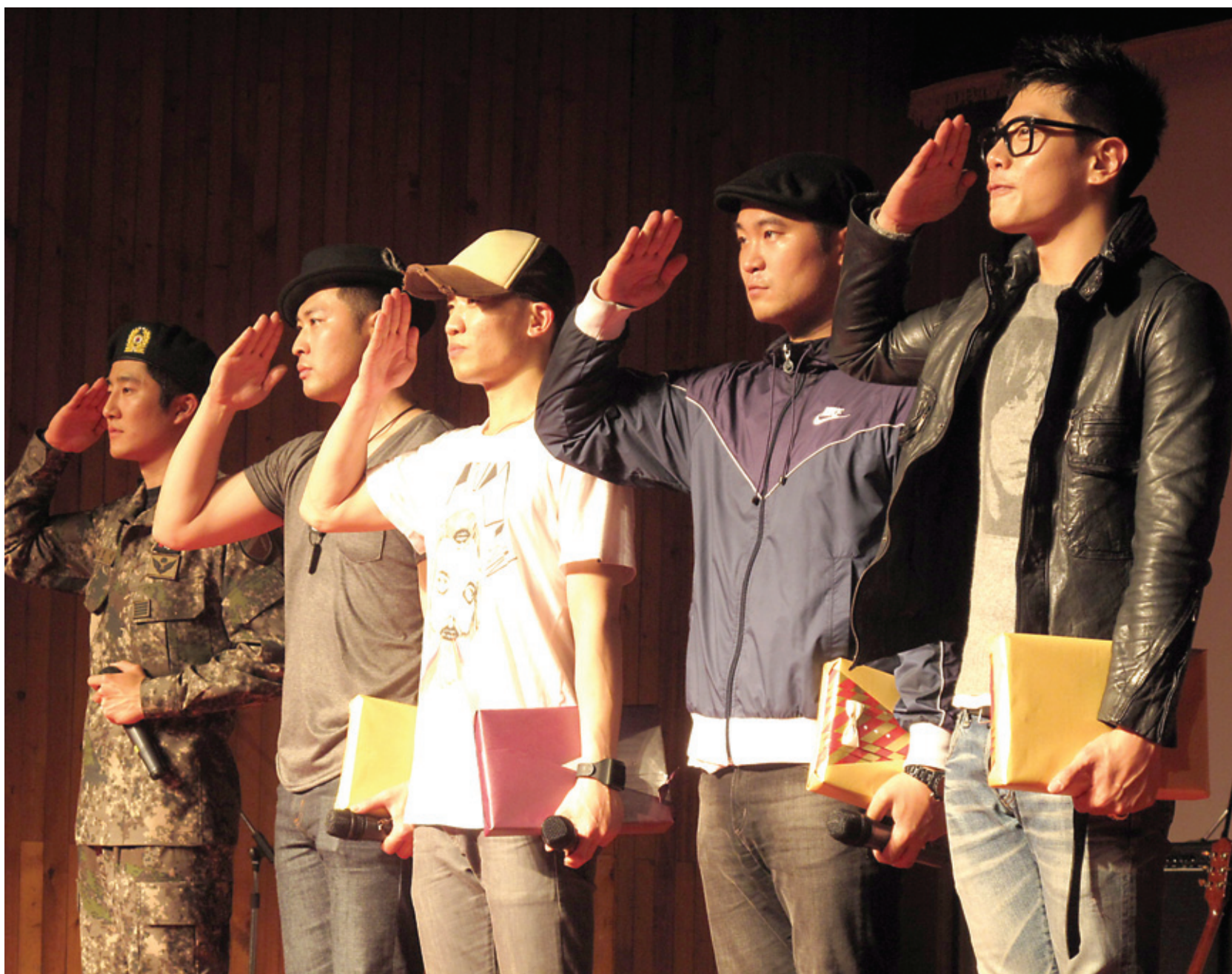
서부전선 최전방을 맡고 있는 육군 제17사단장이었다. 사단장의 화끈한 휴가 명령이 떨어지자 공연장이 술렁였다. 연보라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20여 장병들은 사단장의 명령에 긴장해서인지 아니면 기쁜 마음을 좀 더 추려 곱게 간직하려는지 차려지게 얼굴을 실룩이며 웃음을 참았다. 1000여 장병과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멋진 공연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환호였다.

산사음악회 ‘승리를 여는 진중음악회’가 4월 29일 육군 제17사단 체육관 정무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제17사단 호국연주소(주지 성원)가 기획·주최했다. 사단 군법당이 준비한 행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화려한 출연진이 섭외됐고, 철저한 준비로 공연은 매끄럽게 진행됐다.

행사에는 17사단 장병들로 구성된 공연팀, 번개 풍물패, 사찰 합창단, 불자 성악가 유현주, 불교어린이합창단, 가수 박효신,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등이 참여했다. 배우 이동건 씨와 김지서 씨는 사회를 봤다. 사회에서도 만나기 힘든 스타들을 군대에서 만나서인지 장병들은 “신기하다”며 그들의 공연에 열광했다. 힙합 음악에 흥이 난 장병들은 무대 위까지 뛰어올라 춤추고 노래했다. 결국 무대 일부가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아니어도 장병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음악도 가요, 가곡, 찬불가, 동양국악기 혼연주, 풍물패 등 세대와 장르를 초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당에서 밴드를 결성해 직접 공연에 참여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걸 그룹 노래를 메들리로 뽑아내고, ‘I believe I can fly’ 등 감미로운 노래도 선사했다. 20대 초반의 가수성 풍부한 청년들은 음악에 매료됐다. 장병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 한 듯 공연 중간 중간 “디즈(Deez)! 디즈!”라며 이들



(왼쪽부터)에픽하이 멤버 DJ투컷츠(본명 김정식)·미쓰라진(본명 최진), 다이나믹 듀오 개코(본명 김윤성)·최자(본명 최재호), 박효신.

의 공연에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밴드는 편곡과 프로듀싱, 기타, 키보드, 베이스, 드럼, 코러스 등으로 구성됐다. 구성원 일부는 한 달간 호국연주소 법당에서 합숙하며 공연 준비에 열을 올렸다. 밤 12시까지 연습하고 또 했다. 그래서일까? 공연하는 자세는 음악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섰다.

호국연주소 성원 법사는 행사준비를 하면서 외부 손님을 초청하기 보다는 사단 내에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병들이 펼치는 공연을 기획 했다. 그 중에는 가수 비의 작곡가이자 가수로 잘 알려진 조현철 상병과 작곡가 김민석 상병이 활약했다. 사회에서 이미 가수를 교육시키고 작곡 활동을 해온 그들의 음악적 재능이 군대에서도 빛을 발한 것이다.

평소에도 호국연주소에서는 매주 토요일 장병들이 법당에 와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악기가 준비된다. 성원 법사는 금요일이면 악기를 외부에서 빌려

와 토요일 하루 장병들이 악기를 법당에서 마음껏 연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다. 휴일을 반납하고 장병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종교를 떠나 함께 즐겁게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했다. 동아리 형식으로 악기 지원 정도만 했지만 장병들은 공연을 목표로 밤을 새우며 준비했다.

가수 디즈로 알려진 조현철 상병은 “한 달 정도 코

란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가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것 같다. 불심이 깊은 조현철 상병은 “법당에서 공연준비의 경험은 특별했다. 법당에서는 영감이 떠올라 제대 후 사용할 곡까지 작곡했다. 음악 생활에 새로운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음악 작업을 할 때는 꼭 절에 한 번은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작곡가 김민석 상병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제대 후 음악작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됐고, 장병들과 함께 공연을 작업했던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의미 깊다”며 “음악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원형 17사단장은 이날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보니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행복하다”며 군장병을 격려했다.

17사단에서 처음 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소박하게 하려고 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획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연예인 홍보



이동건(왼쪽·본명 이동근)이 사회를 보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호국연주소 주지 성원 법사



다이나믹 듀오, 박효신 등 국방홍보지원대원의 공연에 장병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원대도 초청됐다. 평소 보명사 성철 스님, 봉영사 선일 스님 등이 장병들을 위해 간식 지원을 아끼지 않던 터라 부대내에서 군법당의 위상(?)이 높은 까닭이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도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이 관람객들을 위해 다례팀을 후원하고, 지선사(주지 덕환)가 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역 불교계에서도 함께했다.

행사를 기획한 성원 법사는 4년 전 정부의 불교평화와 종교평화으로 불교계가 위축돼 있을 때에도 제28사단에서 음악회를 열어 불교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하고자 했었다.

성원 법사는 “성탄절은 전 세계, 전 국민이 축제의 분위기에서 함께 축하하는데 반해 부처님오신날은 우리만의 축제 같았다. 불교도 재미있는 종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법당이 딱딱하고 엄숙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법당에 와서 만큼은 편안하게 취미생활을 하며 군생활에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연 기자

## 가수 박효신·에픽하이·다이나믹 듀오 등 출연 장병들이 가수 디즈와 함께 만든 밴드도 인기

러스를 교육하고 지휘했다. 1년 만에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군대에서 음악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행운이고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돌이키며 방송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아마추어로 구성된 합창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기미술

**민속죽염** 23년 전통  
초상의 알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조계종 전각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집합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불조평택 증, 영, 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 화 두 영, 증, 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평생부자지갑 다라니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카주어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질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 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 앞에서 방해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

로 제작되어있어 풀이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선명, 기돈, 위풍전,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의왕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방앗간, 김장현,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목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방, 인터넷,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사제고, 사업위험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